

장기나눔

사랑의 선율

지난 1997년 4월 창단된 모나무리 실내악단(단장 이형석 전남대 교수)은 10여년 동안 벨기에 첼리스트 디디에 뵈스갱(브뤼셀 왕립음악원 교수) 등 유명 음악인들을 초청, 다채로운 연주활동을 펼치며 지역 클래식 음악계를 풍성하게 했다.

모나무리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9일 문예회관 뒤풀이 주한벨기에 대사·앤드레 끌레브 등 협연 무대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3년 동안 휴지기를 가졌던 모나무리 실내악단이 모나무리 심포니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황성규)로 확대 개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새롭게 출발하는 모나무리의 이번 연주회는 특히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관심이 높아진 장기 기증 운동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행사로 꾸며져 의미가 있다.

광주전남장기기증재단(이사장 지남철)이 직접 연주회를 주최, 장기 기증 운동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연주자가 있다. 바순 연주자로 참여하는 베에르 클레망 뒤풀이 주한 벨기에 대사다. 6세 때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한 뒤풀이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음악원을 졸업한 후 플루트와 바순 연주자로 활동하며 스위스제네바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왔다. 특히 외교관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다양한 연주자들과 공연을 갖는 등 '문화 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광주 공연은 오랫동안 모나무리와 인연을 맺어온 디디에 뵈스갱과 앤드레 끌레브(바이올린·브뤼셀 왕립음악원 교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창단 연주회 때 합연자로 초청받은 뵈스갱 등이 마진 벨기에에서 함께 연주무대에 서근 했던 뒤풀이 대사가 지난해 한국 대사로 부임한 사실을 알고, 합동 무대를 제안한 것. 여기에 오보이스트 피에리 까마에르(체코 알리악음악원 교수)까지 합류하면서 협연팀이 꾸려졌다.

네 사람은 이날 공연에서 하이든의 '오보에·바순·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모나무리와 협연한다.

모나무리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70여명의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됐다. 플루티스트이자 지휘자로도 활동중인 전남대 황성규 교수가 상임지휘자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되며 바이올리스트 양재미씨가 악장으로 참여한다.

모나무리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서 바하의 '바이올린, 오보에, 실내악을 위한 협주곡',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C장조'를 들려주며 파탈레 곡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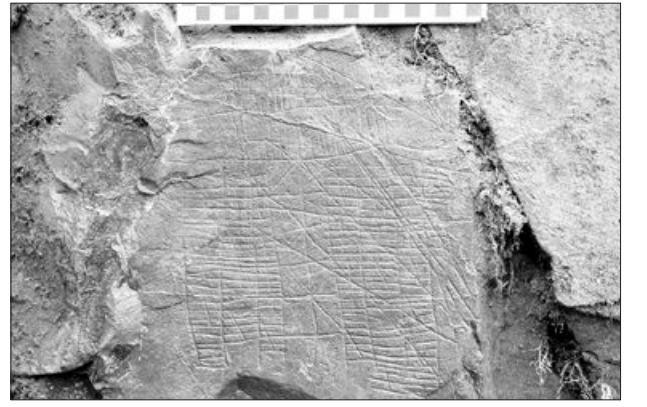
또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호신대 교수)씨가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준다.

한편 뒤풀이 대사는 광주 공연 다음날인 10일에는 나주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10-4617-1473, 장기기증재단 1588-05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주 고인돌 채석장서 '암각화'

선으로 새긴 무늬형태 7점 발견  
고인돌 이동 거리 등 기록 추정



청동기시대 고인돌 채석장으로 알려진 나주시 운곡동 나주 산업단지 조성 부지에서 선사시대 암각화가 발견됐다. <사진>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마한문화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채석장 유적을 조사하다 암반에 새긴 선각(線刻·선으로 새긴 무늬나 그림) 형태의 암각화 7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암각화는 인근 고인돌 상석(윗돌)에서도 2점이 발견됐다. 20~40cm 크기의 암각화는 지붕 형태인 삼각형 아래에 'X'자 모양 도형을 넣었고, 그 좌우에는 사다리 형태를 그려 넣었다.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술적인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여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암각화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 선사시대 다른 암각화가 주로 동물이나 사람을 그린 것과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989년 여수시 오림동 고인돌 유적(도지정문화재 제150호)에서 석벽을 표현한 암각화 10여점이 발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출품 작가 남화연·노재운씨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후보 선정

광주비엔날레 출품 남화연(30), 노재운(38)씨가 국내 유명 미술상인 '2009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주목받은 작가이다. 광주 출신인 남씨는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학교에서 아트 마케팅을, 미국 코넬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뒤 국내에서 전시를 가졌다.

에르메스 코리아는 지난달 31일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로 남화연, 노재운, 박윤영(41)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노씨는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에서 비디오 영상설치 작품인 '잘 들리니까?'를 발표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노씨는 서울, 독일 등지에서 전시를 열었다.

남씨는 지난 2008 광주비엔날레에서 독특한 텍스트와 연극적인 요소를 배치한 영상작품 '망상해수욕장'을 발표해

최종 후보들은 에르메스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제작한 뒤 오

는 8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서울시 신사동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이를 전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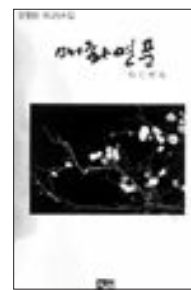
심사위원단에는 '사무소(SAMUSO)'의 김선정 디렉터, 안소연 작가 이블, 독일 필렌 '하우스 데어 콘스트' 디렉터 크리스 테르콘,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 미술관' 디렉터 마르크 올리비에 왈러 등 5명이 참여했다.

에르메스 코리아는 오는 10월29일 최종 우승자를 선정, 상패와 2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은 지난 2000년 제정됐으며 지난해까지 장영혜, 김범, 박이소, 서도호, 박찬경, 구정아, 임민욱, 김상환, 송상희씨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이 차례로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병란 시인 스물 여섯번째 시집 '매화연풍' 펴내

문병란 시인(70)이 스물 여섯번째 시집 '매화연풍'(코리아 퍼블)을 펴냈다.



2006년 '민들레 타령' 출간이후 3년 만에 발표한 신작 시집에는 일상에서 길어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시 100여편이 실렸다.

서정시가 풍요속의 결핍을 이기고 희망의 별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제작 '매화연풍'을 비롯 2000년 교단을 떠난 이후 여기저기 발표된 시중에서 아끼는 시들을 엮은 이번 시집은 '탁류송'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을의 여백에 앉아서' 등 총 6부로 구성했다.

시집 말미에는 '나의 시작과정과 시작을 호'라는 자작시 해설을 덧붙여 시인의 창작세계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정시가 주를 이루었으며 2006년 방북 때 느낀 소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해 읊은 시들은 따로 모아 '개성공단 그 통일로에서'로 엮었다.

시인은 "경제 불황의 암운이 덮쳐오

홍윤진씨 초청 가야금 무대  
2일 서구 빛고을극장전수관

가야금연주자 홍윤진씨 초청 무대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극장전수관에서 열린다. 홍씨는 이번 무대에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며 이성천씨의 독주곡 '5월의 노래', '노년평의 4월의 노래'에 의한 시상(詩想)을 선사한다.

또 박범훈씨의 '새산조'를 25현 가야금과 건반, 콘트라 베이스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홍씨는 창작곡과 실내악단 '도드리', 가야금양상물 '그린나래' '트리오 루트머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종일(장고), 김현화(건반), 최동일(콘트라베이스)씨 등이 함께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It includes titles like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엔터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 시네마'. Each listing provides showtim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spective cinema.